

서 평

## 구조의 분석과 실천의 선택

김주희,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 (현실문화, 2020)  
신박진영,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봄알람, 2020)

김애령\*

### 1.

다양한 주제의 페미니즘 관련 신간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 서적 열풍’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게 과거 페미니스트 이론서들의 재출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슈를 다룬 다양한 저자의 페미니즘 관련 신간 출판이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신속하게 이어지고 있다.<sup>1)</sup> 그 열풍에 비하면, 몇몇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 외에<sup>2)</sup> 성매매 문제를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aeryung@ewha.ac.kr)

© 202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DOI: <https://doi.org/10.20992/gc.2021.06.14.1.149>

- 1) “‘응답하라’ 20대 여성들, 페미니즘 도서 열풍 이끈다”(『경향신문』, 2016.8.9). “서점가는 페미니즘 열풍... 2018년을 달군 페미니즘 도서는?”(『여성신문』, 2018.12.8) 등 2016년 이후 다양한 매체들이 ‘페미니즘 도서 열풍’을 하나의 현상으로 소개했다.
- 2) 이소희 외(2018),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판매 여성 안녕들 하십니까』, 서울: 여이연, 봄날(2019),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 성매매라는 착취와 폭력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의 용감한 기록』, 서울: 반비.

분석적으로 다른 신간 이론서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그런 중에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와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을 반갑게 만났다.

2020년 발간된 이 두 권의 책은 사뭇 다른 의미에서 강한 울림을 갖는다. 냉철하고 구조적인 금융경제에 대한 분석을 성산업 공간에서의 돈의 흐름과 연결시켜 보여주는 『레이디 크레딧』과 성매매 공간의 근절되지 않는 착취와 폭력의 연쇄에 대한 실천적이고도 뜨거운 분노를 담은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포항 지역에서 있었던 유흥업소 여성들의 연쇄적 자살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각기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접근한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책날개에 담긴 저자 소개에 따르면 이 두 책의 저자는 각기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와 '성매매 여성 지원 활동가'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 활동가 출신'의 연구자이고, '성매매집결지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로 논문을 완성한 '여성학 연구자'인 활동가이다. 따라서 현장을 잘 아는 연구자이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활동가인 이 두 저자의 책은 분석적인 이론서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보고서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혹은 무엇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는가? 서울의 전통적인 성매매집결지들이 도심 재개발사업의 영향 하에 사라져가고 있는 한편, 강남에서는 기업화된 대형 룸살롱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뉴스를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 판매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구매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매매 '후기'를 나누면서 '서비스'를 평가한다고 한다.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가 하면, 창의적인 이름의 다종다양한 '신종' 성산업들이 성업을 이룬다는 뉴스도 읽을 수 있다. 『레이디 크레딧』과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은, 지금 성산업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의 성매매 시장을 어떻게 보아

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혹은 달라지지 않았는가?

## 2.

‘성매매’를 다룰 때면 언제나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명명(命名)’이다. ‘성매매’ 담론의 장에서 명명은 곧 ‘입장’을 드러내는 ‘정치적’ 문제로 인식된다. 어떻게 이름 붙일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입장이 갈리고 논쟁은 시작된다.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의 저자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 ‘매춘 여성’, ‘매춘부’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지금은 ‘성매매 여성’과 ‘성 판매 여성’을 주로 사용하지만, ‘성 판매 여성’은 ‘판매’하는 여성의 자율성을 부각하여 성매매를 사회적 구조 속에 놓이는 총체적 틀에서 볼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름 붙이기를 정치적 행위로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밝힌다(신박진영, 2020: 25).<sup>3)</sup> 그러나 ‘성매매(性賣買)’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인 한,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론적 불일치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불일치는 호칭에만 한정되는 것 같지 않다.

책의 저자가 밝히는 바, 그녀가 만난 1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 안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들에게 성매매는 생존을 위한 ‘일’이다”(신박진영, 2020: 134). 그들은 돈을 벌기

3) 『레이디 크레딧』의 저자도 “기존의 여성주의 정치학은 자신들의 독자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지칭할 것인지에 대해 침예하게 대립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특정한 여성’이 아닌 ‘특정한 문맥’을 강조하기 위해 “성판매자, 성매매 여성, 매춘 여성, 유흥업소 종사 여성, ‘아가씨’ 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주희, 2020: 26).

위해 그 ‘일’을 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적는다. 성매매는 착취이고, 성폭력이다. “성매매와 성폭력은 동일한 어법을 가지고 있다. ‘힘에 의한 성적 지배’가 그것이다”(신박진영, 2020: 150). “성매매 현장에 ‘여성’은 없다.” 상품으로만 다루어진다. 그래서 활동가인 이 책의 저자는, 이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을 가시화하고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 여기 상품이 아닌 ‘여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일’을 하는 것과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다르다. 생존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여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하는’ 여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단지 상품이 아닌 것처럼, 단지 피해자가 아니다.

이와 유사한 긴장은 ‘당사자주의’에도 있다. 당사자성의 존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서문에서 저자는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옮겨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다. “그들의 이야기는 왜 성매매가 폭력에 다름 아닌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때문이다(신박진영, 2020: 218). 그러나 몇몇 남성 지식인들이 전하는 ‘성 노동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게으르고 무책임하다. 이 남성 지식인들은 “당사자성에 열광하며 성 노동론에 힘을 싣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의 인터뷰에도 등장하는 성매매의 폭력적 본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신박진영, 2020: 221). 책의 저자는, 모든 당사자가 한 목소리일 수 없고, 그들이 각기 다른 입장과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여성주의자들 또한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듣고, 부분적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신박진영, 2020: 222-223). 그러기 위해서라도 물음은 유지되어야 한다. 각기 다른 경로로 각기 다른 정치적 주장을 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또한 그렇게 들은 목소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여성들을 지원하면서 활동하는 것은, 매 경우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천착하면서 때로 모순적인 결정을 해야만 하는 깨어있는 실천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매순간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신념조차 점검해야하는 지난한 성찰의 과정일 것이다. ‘반성매매운동’의 현장 활동가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성매매, 상식을 블랙홀』의 저자는 “책상 앞에 앉아 성매매를 연구하고 정책을 논하는 이들에게 답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신박진영, 2020: 16). ‘답하기 위해서’ ‘다른’ 입장들을 읽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그녀가 ‘지금’ 제안하는 방향은, ‘합법적 규제주의’도 아니고 ‘전면적인 비범죄주의’도 아닌,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신금지주의’이다(신박진영, 2020: 172).<sup>4)</sup>

특별법 이후 성매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피해여성 지원이 확대되었고, 지원 시스템이 확대되었으며, 단체와 기관들의 활동력도 확대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이루어졌다”(신박진영, 2020: 228-229). 그러나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은 한국에서 성매매 ‘불법화’는 실패했고, ‘겸업형 업소들’이 놀랍게 팽창했으며, 시장이 거대해졌고, 알선 업체는 조직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신박진영, 2020: 88). ‘불법화’는 왜 실패했을까? ‘신금지주의’ 정책은 이 실패를 뒤집을 수 있을까?

---

4) 저자의 분류에 따르면,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북아일랜드 등이 채용하는 ‘신금지주의’ 성매매 정책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업자, 구매자 처벌”과 “탈성매매 지원”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성도덕적 금지주의와 신금지주의가 상호 모순적으로 뒤섞여 있다(신박진영, 2020: 172).”

## 3.

『레이디 크레딧』의 저자는, ‘자발’ 대 ‘폭력’, ‘인정’ 대 ‘근절’이라는 기존의 구도로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변화하는 성매매 경제의 구조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로 인한 채권을 무효화하지만, 지금 성산업 공간에서의 부채는 개별 업주와 ‘아가씨’ 사이의 사적 관계나 사채나 일수 같이 면식 있는 중간 매개자와의 관계를 떠나, ‘합법적인’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신용’ 거래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산업 내 경제적 관계의 형식과 이를 만들어내는 구성원이 변화하고 있다”(김주희, 2020: 30). 책의 저자는 ‘여성의 몸’이 금융시장 안에서 유통 가능한 채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담보로 하는 성 산업은 금융자본의 안전한 투자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은행이 성매매의 새로운 공범’이 되었다는 것, 그렇게 성 산업은 확장되면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금융자본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레이디 크레딧』은, 폭력조직 두목이었던 조씨와 J저축은행 사이에 있었던 ‘마이킹 대출’ 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여성의 몸’이 어떻게 금융권이 인정하는 안전한 ‘담보’가 되어 기업형 유흥업소의 자본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준다. 조씨 등은 허위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업소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대출해주는 ‘마이킹 대출’을 수십억씩 받아내어 업소 창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책의 저자는, 금융권이 만들어내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특화 대출 상품’에 주목한다. 이제 여성들을 성 산업 회로에 흡아낼 ‘빚’은 업주 또는 사채업자와의 대면적인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인격화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정상화된다. “대출에서 신용 보강을 위해 여성들의 신체가 담보물과 같은 것으로 설정되는 과정, 담보화 과정은 여성들의 채권을 증권시장에서 판매·유통·유동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김주희, 2020: 174).

산업 생산이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융자본은 ‘노동이 없는 사람들’까지 ‘신용의존 계급’으로 만들어 그들의 삶을 담보로 고리를 취하기 시작했다. 금융자본이 만들어내는 ‘신용의 민주화’는, 이전과 달리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들까지 빚을 질 수 있게 한다. ‘채권’을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금융 테크놀로지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은행은 채권을 증권화하여 위험을 회피한다. “은행이 채무자에게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즉 대출 자산을 누군가에게 판매할 경우 대출 회수 이전에 은행은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고 또 다른 고객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부채가 마치 자산처럼 담보로 제공되면서 또 다른 차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김주희, 2020: 181). 이와 같은 금융 시스템 안에, ‘유형업소 특화 대출’이 있다. 금융자본에게 유형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안전한’ 사업처가 되었다.

성매매 공간 내에서 ‘빚’은 여성들의 탈주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족쇄였고, 지금도 그렇다. ‘일을 하면 이자도 지불하고 원금도 상환할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미래의 가능 수익을 담보로 현재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빚’을 끌어 쓴다. 이런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착취자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중략) 오늘날 여성들의 부채는 증권화 기법을 통해 이 시대 투자자 주체들의 이해관계 안에 포섭되고 있다. 금융자본이 단순히 산업 영역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넘어 리스크를 가공해 투자자에게 중개하는 현대의 금융경제 속에서 매춘 여성들의 채권은 투자 상품이 된다”(김주희, 2020: 185). 저자에 따르면, 이런 구조로 본다면, ‘탈성매매’나 ‘전업’과 같은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언제든 ‘채권추심’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탈주할 수 없다.

‘신용의 민주화’는 성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이다. 성 판매 여성이 성 산업 내에서 겪어야 하는 착취와 폭력의

문제도, 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달라진 ‘부채’의 의미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주체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레이디 크레딧』은 금융시장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여성의 몸’은 수익성 높은 담보로 유통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레이디 크레딧』은 세밀하게 서열화된 업소의 유형들에서 각기 어떤 경제적 관계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은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녀들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익명화된 ‘신용’ 관계 안에 편입되면서 ‘파산하지 못하는 부자유’를 전제로 획득한 여성들의 ‘자유’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여성들이 말하는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는 빈곤의 대척점에 놓인 것이지만, 결국 익명화된 부채라는 보이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획득한 것이다. 책의 저자는, 여성들이 느끼고 추구하는 자유는 “성매매 산업 안에서 구속적인 인물과 장치들이 보이지 않게 변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인격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재무 상태를 관리하는 주체로 거듭났다고 스스로 정체화하게 된다”(김주희, 2020: 361). 하지만 이렇게 획득하게 된 ‘기회’와 ‘자유’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파산조차 할 수 없다. 그녀들은 ‘파산불가능한 주체’가 된다. “이들은 ‘신용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신용과 자유를 재생산하기 위해 지금의 현금 흐름을 계속 회전시켜야 한다”(김주희, 2020: 384). 그 회전은 ‘일’을 지속하는 것으로만 보장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매매 문제는 여성개인을 ‘탈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김주희, 2020: 387). ‘탈성매매’가 무의미한 이유는 ‘탈-성매매’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파산이 불가능’해서이다.

『레이디 크레딧』은 ‘노동 없이 돈을 만들어 내는 여성’, ‘노동 없는 여성’에게 ‘몸’이 담보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한다. 이 분석적 개념은, 그러나 순식간에 그 여성들이 하는 ‘일’을 비가시화한다. 여성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성 산업 공간 안에서, 여성은 단지 거래 가능한 몸, 수단이자 대상일 뿐인가? 이 책에 담긴 인터뷰들에서, 여성들은 각기 그 구조적 힘에 짓눌리면서도 개인적 차원에서 협상하며 선택하고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4.

『레이디 크레딧』은 성매매 문제를 구조적 관점에서, 특히 금융자본이라는 맥락에서 들여다보게 한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각 개인의 선택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매매는 사회적 체제 밖에 놓인 독립적 실체가 아니며, 그것에 대한 분석은 언제나 사회적,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숙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은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실천은 급박하게 요청되고, 위기는 절박하며, 폭력은 직접적이다.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은, 이런 절실한 문제들을 일깨운다. “성매매는 한국 사회에 실재하는 거대한 상식의 블랙홀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다”(신박진영, 2020: 19). 분명 그러하다. 그러나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실천의 방향도 단순하고 선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권의 책 사이에서, 구조적 분석과 실천적 선택 사이의 쉽지 않은 접점을 생각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주희(2020),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 서울: 현실문화.  
봄날(2019),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 성매매라는 착취와 폭력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의 용감한 기록』, 서울: 반비.  
신박진영(2020),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서울: 봄알람.  
이소희 외(2018),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판매 여성 안녕들 하십니까』, 서울: 여이연.

###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16.8.9, “‘응답하라’ 20대 여성들, 페미니즘 도서 열풍 이끈다”.  
『여성신문』, 2018.12.8, “서점가는 페미니즘 열풍... 2018년을 달군 페미니즘 도서는?”.